

# 광주동·서부교육청, '3월 문해력 집중지원 프로그램'

##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해당 학교 방문해

###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문해력 지도·지원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관내 9개교의 한글 해득을 어려워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문해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15~26일 운영한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대상 학생이 해당 학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글 해득, 유창성 등 최소한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학부

모의 동의를 거쳐 '기초학력 전담교사-담임교사 협력수업'·'방과 후 수업'·'수업시간' 중 일부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실시되는 개별화 수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기초학력 전담교사 5명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습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 학습코칭, 맞춤형 지도 등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생지도 외에도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생지도 과정 및 방법을 공

유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부모와는 진단 결과 및 개별화 지도 결과를 수시로 상담해 가정에서 연계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문해력 및 수리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습 부진 예방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학년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며 "학생 맞춤형 지도, 찾아가는 기초학력 컨설팅, 교원 연수·학습자료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및 수리력 중심의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영암교육청, 아이도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농산어촌 유학

### 서울로부터 온 6가족 11명의 학생들과 새로운 만남 가져



영암 구립초등학교(교장 오종태)는 농촌유학생들을 시작한 학생과 가족들의 알차고 행복한 시골살이를 돕기 위해서 '농산어촌유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했다.

새 봄, 서울로부터 온 6가족 11명의 학생들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구립초등학교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습과 건강, 방과후수업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안내하였다.

또한 영암 관광 안내 지도와 영암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마을학교 가이드북 '영암마을 이야기'를 배부하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향 영암 곳곳을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했다.

오종태 교장은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과 즐겁게 만나고, 행복하게 나누어 알찬 배움의 장을 만들겠다"라며 유학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

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촌 유학생 5학년 이 OO 학생의 학부모는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 놀고 학교 가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니 부모의 마음도 뿌듯합니다."라며 "서울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농산어촌유학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암군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생태 친화적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산어촌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애 교육장은 "온 마을이 배움터이다. 특히 영암으로 유학 온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도갑사 다도문화체험, 유학생 가이급 교육 등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유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가 영암에서 함께 힐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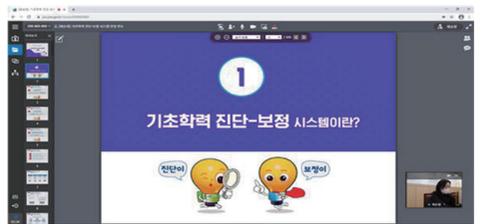
## 화순교육청, 기초학력 격차 최소화 노력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obt) 활용 온라인 연수 운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지난 15, 16일 양일간 초·중학교 기초학력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obt) 활용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통합적 진단과 보정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판별하고 책임있는 교육을 향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학년 초에 진단하고 미도달학생 대상 보충 학습 및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지와 보충학습-지도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고 기초학력 보정 및 향상도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며 기초학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및 학습코칭, 학습코칭 강사 채용 및 1:1 맞춤형 학습지도, 광주교대 연계 대학생 멘토링, 온라인 개별화 학습 지원, 기초학력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진행된다.

이현희 화순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습 부진 예방과 학생들의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개별화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힘써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1004섬 신안, '나의 꿈 디자인하기' 상담 운영

### 진로·직업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집단 상담

신안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3월~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진로 집단 상담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의 꿈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한층 더 도움을 주고,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구체적인 탐

색, 자기이해의 기회로 자아효능감 및 진로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또래관계, 진로, 학업, 인터넷 중독, 가정문제, 비행, 자해, 가출, 성폭력, 학교폭력 등 위기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국번 없이 1388, 또는 240-8701-04로 전화하면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 광주동부교육청, 화재로부터 안전 위해 관내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병설유치원 22개원에 1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소방시설물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2018.6.26.)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됐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스

프링클러 시설을 갖추도록 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됐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화재의 초기 진압 및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아의 특수성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